

한농연 지역 조직 활동 소식

○ 부여군연합회 세도면회, 어려운 이웃 지붕 수리 봉사활동

- 부여군연합회 세도면회(회장 강창영)는 3월 7일 발생한 돌풍에 지붕이 통째로 뜯겨져 곤경에 처한 세도면 가회4리 백모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음. 전달된 성금은 지난 19일 어려움에 처한 수급장애인의 뜯겨진 지붕을 말끔히 수리해 도움을 주었음
- 부여군연합회 세도면회는 2월에도 청송4리 독거노인에게 생환리 20만원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고창군연합회, 한마음 가족대회 개최

- 고창군연합회(회장 이경호)는 20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농업경영인 및 가족, 기관·사회단체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고창군농업경영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음

○ 인천광역시 계양구연합회, 구청 앞 금요 직거래장터 참여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이 3월 28일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구청 광장에서 개장하는 직거래장터에 계양구연합회(회장 김태경) 및 회원 농가들이 참여할 예정임
- 인천농협 주관으로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관내 지역농협과 농업인단체, 생산 농가 등이 참여함. 계양지역에서 생산된 계는 감춘쌀과 엄마가 고른쌀, 채소류, 버섯, 화훼, 인삼, 잡곡, 과일, 채소 등 다양하며, 품목별로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음

지역 농정 관련 소식

○ 경남도의회,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 경남도의회 조근제 의원(함안, 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3일 경남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음
-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 사업,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등 후계농어업경영인이 경남도의 농어업 발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시책 등이 포함됐음

○ 완주군, 가업 승계 농업인에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 전북 완주군의회는 3월 19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를 잇는 농업인을 지원하도록 김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음
- 지원 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만 50세 미만의 농업인으로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됨. 아울러

가업을 승계한 농업인이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거나 장비를 살 때 특별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였음

○ 의성군선관위,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합의문 돌린 농민회장 고발

-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작성한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돌린 농민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음
-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한 B씨와 C씨 중 B씨를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C씨를 다음 선거 때 밀어주기로 한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마을이장 등 5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음
- A씨가 돌린 합의문에는 "선거에 당선되던 낙선되던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선거에 출마자(C씨)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모든 일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음. A씨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 B씨가 합의를 깨고 출마하려 하자 합의문을 복사해 돌린 것으로 알려져
- 현행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게 돼 있음

○ 보은군경찰서, 술마신 농민 연락오면 대리운전 및 귀가 지원

- 충북 보은경찰서는 3월 17일부터 '경운기 대리운전'을 시행 중임. 이는 술을 마신 농민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연락하면 경운기를 운전할 수 있는 경찰관이 경운기를 집까지 운전해 주거나,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는 제도임
- 보은경찰서가 경운기 대리운전제를 도입한 이유는 경운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가 아니어서 농기계에는 면허증이 없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농민들이 음주운전 후 경운기 사고가 빈발했기 때문임

○ 제주도 공무원의 보조금 사기 피해 입은 농민, 대책위 구성

- 제주도 공무원의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 피해 농업인 30여명이 '(가칭) 시설하우스 사기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변호사 선임과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음
- 비대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제주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함

○ 농업인교류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농업인법률학교 관련 문의

- 법률(변호사·법무사), 세무·회계(공인회계사), 민영·정책보험(손해사정인), 농협·농업법인(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림사업(관련 전문가)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직접 실시하는 교육 및 현장 민원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 오준호 대리 (070-7165-0013)